가해·제2047호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0년 4월 5일

춘천주보

로히르 반 데르 웨이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1432-35년, 목판에 유채, 프라도 국립박물관, 마드리드, 스페인

2020년 사목교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목 차

02 특집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63]

03 말씀의 향기
나의 십자가

04 사목단상
봄과 가을을 찾아주세요!

05 열린마당
성주간 전례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발행인 김운회 · 편집 문화홍보국 · 주소 (24338)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 전화 033)240-6012 · 팩스 033)240-6013 · 이메일 ccjubo@gmail.com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 [63]

글/ 교회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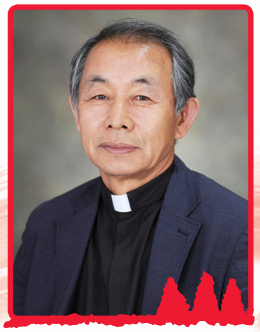
지난 2019년부터 교구 설정 80년의 역사를 정리해보았다. 우리 교구에 베푸신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춘천교구 신앙의 얼을 우리 모두 잘 이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린다.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 기획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춘천교구의 시작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연표를 적으며 이 연재를 마칠까 한다.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빈다.

춘천교구 전사 (1791-1939)

1791. 직후	신해박해 직후 최양업 신부의 방계 선조(최한기)가 일가를 이끌고 한양에서 강원도 홍천 남면 학익동으로 이주
1801.	신유박해 당시 포천의 홍교만(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순교. 신유박해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강원도의 강릉, 이천(伊川), 양양, 고성, 횡성, 통천, 회양, 인제, 양구, 김화, 낭천(현재의 화천), 평창 등지로 유배
1802.	신태보(베드로)가 신유박해 순교자 유족들을 이끌고 용인에서 강원도로 이주. 포천의 홍인 레오 순교
1815.	김강이(시몬)가 울진에서 체포되어, 원주 감영에서 옥사
1839.	회양 출신 조신철(가롤로)이 서울에서 잡혀, 서소문에서 순교
1868.	강원도 횡성 출신 심능석(스테파노) 순교
1876.	블랑(Blanc) 신부, 강원도 이천 · 양구 · 낭천(현재의 화천) · 영동지역 순회
1883.	파리 외방전교회의 드게트(Deguette) 신부가 강원도 지역의 사목을 담당
1884. 04.	북강원 이천(伊川) 본당 설립(주보: 루르드의 성모)
1888. 06.	횡성 풍수원 본당 설립(주보: 예수성심, 원주교구)
1896.	이천 본당에서 포내 본당 분가, 풍수원 본당에서 원주 본당 분가
1896. 08. 17.	원주 원동 본당 설립(주보: 천주 은총의 모친, 원주교구)
1904. 05. 04.	원주 용소막 본당 설립(주보: 루르드의 성모, 원주교구)
1920. 09.	곰실 공소에 춘천 본당 설립(현 죽림동, 주보: 예수성심)
1921. 04.	싸리재 공소에 양양 본당 설립(주보: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1921. 12. ~ 1922. 01.	금광리 공소에 강릉 본당 설립(현 임당동, 주보: 성 골롬바노)
1923. 05.	송정 공소에 본당 설립(주보: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11.	주문진 본당 설립(주보: 루르드의 성모)
1924.	북강원 평강 본당 설립(주보: 예수성심)
1930. 03. 20.	횡성 본당 설립(주보: 천지의 모후, 원주교구)
12. 15.	춘천 본당에 소화유치원 설립
1931. 05.	평창 대화 본당 설립(주보: 예수의 아기 소화데레사, 원주교구)
1936.	송정 본당 홍천읍으로 이전 및 홍천 본당으로 개칭
1938. 06. 09.	교황청 강원도 지역 분리 및 성 골롬반 외방 전교회에 사목권 위임 윤허

이 준비를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배종호 토마스 신부
기린본당 주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인 동시에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인간의 증오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사슬에 갇힌 인간을 향한 하느님 자비의 연대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원적 어두움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는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믿음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제기하는 도전과 질문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은 세상의 논리와 달리 돈이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내 인생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나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때가 있었지만 비난과 외면을 받기도 했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키려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인생의 돌발변수를 만나면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불평하는 것이 나의 속성이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거룩함이란, 때 묻지 않은 청정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오히려 밝게 빛나는 작은 불빛이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겪게 될 돌발변수들이 두려워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자아의 틀에 갇혀 유다처럼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속됨에 빠지기보다는 찢기고 부서져도 그 시련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는 순간, 나는 거룩함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두운 순간들도 은총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아마 내 인생은 작은 거룩함으로 가득 차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단하게 언 땅에 연한 새싹이 움터 나오고 꽃이 피듯이 죽음보다 강한 희망으로 더욱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가오는 부활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첫 마음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목/단/상

봄과 가을을 찾아주세요!

여러 계절을 지내고 보내며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너무 짧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름과 겨울이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봄과 가을은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봄이 와서 따뜻하다 싶으면 금세 무더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시원하다 싶으면 금세 추운 겨울이 옵니다. 봄옷, 가을옷은 얼마 입지 못하고 장롱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긴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므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정도의 지식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우리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춥고 덥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해 생기는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 어업 등의 피해와 전염병이나 각종 질환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과 쓰나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정상적이었던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아프면서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아프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아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정능력을 지닙니다. 아픈 지구는 스스로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지구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활 쓰레기,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일회용품,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시합니다. 내가 실천하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우리의 지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의 봄과 가을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과 어울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느님께서 참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린마당 성주간 전례

예수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의 예수 그리스도 행적은 극적이다. 인간의 사랑과 비난을 한 몸으로 받는 것은 물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는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고 깊다.

거룩한 주간인 성주간(聖週間)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강하게 체험하는 성주간 전례 내용과 역사, 의미를 살펴본다.

❖ 성주간의 역사와 변천

4세기 말에 쓰인 「에제리아의 여행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의 수난과 죽음, 부활 사건을 전례 안에서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례는 파스카 성삼일의 기원이 됐다.

교회법에 성주간이 명시된 것은 5~6세기 이후다. 초기 로마교회에서는 성삼일에 성 금요일 구시(오후 3시)의 수난 예식, 성대한 파스카 성야와 부활 대축일 주일 미사를 포함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예수의 마지막 생애에 일어난 사건에 집착함으로써 예수의 고통과 죽음의 신비를 퇴색시키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따라 비오 12세 교황은 1951년 파스카 성야를 복구하고 성삼일 전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부활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했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자 성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이날은 나뭇가지 축복과 예루살렘 입성 기념행렬의 전례를 거행,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한다.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하는 예절이 미사 전에 거행된 것은 1956년부터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고백하고 따라야 한다.

이날 전례의 특징은 기쁨과 수난 복음이 교차된다는 것이다. 미사 중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서 알리는 수난 복음을 낭독한다.

❖ 성삼일의 의미

흔히 성삼일이라고 하면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하게는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 금요일,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성 토요일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이다. 하지만 축일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전례 전통에 따라 성 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도 성 금요일의 전야에 해당된다.

'주님 만찬 미사'로 시작되는 성삼일은 사순 시기의 마지막 절정이자 부활 대축일로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때문에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러지는 성삼일 미사는 평소 예식과 다른 점이 많다.

출처/참고 가톨릭신문, 이지연 기자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교구장 성삼일 전례 (죽림동 주교좌 성당)
성유 축성 미사: 4. 9(목) 10:30
주님 만찬 미사: 4. 9(목) 20시
주님 수난 예절: 4. 10(금) 15시
부활 성야 미사: 4. 11(토) 20시

축하드립니다!
사제 서품 30주년/1990. 1. 24 서품
정기원 미카엘(운천성당 주임)
김광근 도미니코(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현신 요셉(스무숲성당 주임)
용영일 F. 하비에르(겟세마니 피정의 집)
* 성유 축성 미사(4. 9) 중 축하식이 있습니다.

교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4월 카나 혼인 강좌/커플당 3만원
4. 18(토) 18:30, 입암성당, 솔모루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접수: 사목국 (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예리코클리닉 차량이용 협조자 구합니다.
예리코클리닉(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을 위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승합차 소유자·단체·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사항: 차량지원, 차량 및 운전봉사(승합 차이상 차량)/ 이용시간: 매월 1·3주 12시-17시
☎ 033-264-5011 한삶의집/010-5368-2750 문의

2020년 1학기
명도학당 수강기간 변경안내
기간: 4. 20(월) ~ 7. 13(월)로 연기
일정 연기 외 12주 프로그램 변경 없음
접수: 4. 17(금)까지 수강신청 변경 및 추가 신청 가능(본당사무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는 더 없으며 강의 취소의 경우 2학기에 동일 프로그램 개설함
☎ 033-243-4416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속초 글라라형제회 ☎ 010-5364-0373

오세철 가브리엘 신부 18주기

생년월일 : 1945. 4. 2
서 품 일 : 1972. 12. 8
선 종 일 : 2002. 4. 5

◈ 교구 사제 사목활동비와 생활비 봉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구의 본당 및 시설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판단되어, 교구 사제단이 먼저 어려움을 나누고자 교구의 모든 사제는 4월 한달 사목활동비와 생활비를 본당에 봉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당에 재직하고 있는 주임과 보좌사제는 재직본당에, 교구청·특수사목·그 외 사제들은 모금하여 교구내 어려운 본당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기도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보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2019. 12. 1 ~ 2020. 11. 28)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기념
달력 사진 공모전

춘천교구 설정 80년, 우리의 모습들
촬영 기간: 2018. 12. 1 ~ 2020. 6. 30
접수 기간: 2020. 6. 1 ~ 7. 10
응모 방법: ccdiocmedia@gmail.com
주최: 문화홍보국·후원: 춘천가톨릭신협

『신간 도서 소개』

우애의 발견 안셀름 그륀 지음·256면·1만5천원 / 생활성서
안셀름 그륀 신부는 이 책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재발견하며, 우리 모두에게 우애를 향한 갈망을 일깨운다. 그륀 신부는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그 관계를 더욱 지지하면서, 현재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그 고통으로 일생 동안 시달리지 않도록 그것을 지혜롭게 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형제자매에게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춘 천 한 우
1++최상급 한우구이 전문점
점심특선 한우불고기 명품 정식
한우 소머리 사골 곰탕
춘천시 동면 장학리 786-3번지
☎ 033-257-0205 노윤정 모데스타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대게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변길99
☎ 633-8887, 010-8791-4220
이순석 베드로·박영희 요셉피나

인 준 시 설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몬띠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받으신분
운영: 마리아의아들수도회(사회복지법인바다의별)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2020년 이용 장애인 모집 안내
어우리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꿈터(직업재활)
대상: 춘천시에 거주하는 이용 장애인
각 3개 시설 담당자와 전화 접수 후 방문 상담
☎ 033-264-1086 어우리주간보호소
☎ 033-264-0384 어우리단기보호소
☎ 033-264-9983 어우리꿈터

갈바리노인복지센터 어르신모집
1~5등급 재가등급 받으신 어르신을 모집
방문요양, 방문목욕(강릉)
☎ 033-644-3477, 3474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가정폭력 초기예방교육. ☎ 033-1366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공동체사업 활동가 모집
대상: 춘천시 석사동 거주 성인
내용: 석사동 내 취약 가정 가족 돌봄
☎ 033-262-0035 지역복지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방문목욕)서비스이용자 모집
대상: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시간:월~금 9시-18시
☎ 033-262-0152 사회서비스팀

밀알일터와 함께 할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대상: 등록장애인, 기간: 연중 수시, 만18세 이상, 인원 00명 ☎ 033-261-7112 문의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춘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도와드립니다
대상: 만9 - 24세 학교 밖 청소년
내용: 학업·자립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지원, 자기계발, 건강검진 및 문화체험
☎ 033-818-1318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사회복지사) 채용공고
함께 근무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분야: 사회복지사 1명(회계가능자 우대)/ 서류심사 및 면접/홈페이지 www.gncaritas.org
☎ 033-643-1801~3 문의

춘천교구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교구 영상을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구독방법: www.youtube.com/user/ccdiocmedia 에 접속한다→
구독 버튼을 꾹! 누른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ccccatholic
트위터: www.twitter.com/ccccatholic

일 반 알 림

분도여행사
10. 15 유럽 성모발현지 순례 (390만원, 12박 13일)
☎ 02-852-8525 문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구속주회
4. 8(수) 13:30, 죽림동 소성당
내용: 기도, 강의, 미사, 고해성사
☎ 010-3394-3217 문의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 가능)
4. 20 ~ 22/ 4. 24 ~ 26/ 4. 28 ~ 30
5. 2~5(추자도)/ 5. 9~12(추자도)/ 5. 15~17
☎ 02-773-1463, 064-756-6009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8박 9일)
4. 17(금) ~ 25(토), 5. 22(금) ~ 30(토)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010-3340-0201 문의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마태 7,15

만기유지 시 보너스 이율로 한번 더!
◈ (무)어부바신협보너스저축공제 ◈
연복리로 한번!
만기채워 보너스 이율로 한번 더!
장기유지시 비과세 혜택까지~
더더더 받으세요♬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르노삼성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인하(최고 143만원)
신차·쿠페형 SUV XM3 정식출시!
QM6,SM6-10년이상노후차교체 최대350할인
마스타(화물,승합13-15인승), LPG 누구나 구입가능
☎ 010-5484-7785 팀장 양중호 야고보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온누리통합복지센터
주간보호(장기요양1~6등급)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차량목욕
춘천시 동면 만천리 가톨릭회관 입구 사거리
☎ 033-255-6665, 254-6665
조규경 안젤라·김일규 요아킴·이누리 노엘라

수맥 흙 침대
30년 공장직영, 황토소파
주보지참 교우 우대
☎ 1588-5335
이백 베드로

종합광고 알파피앤디
간판/ 현수막/ 표지판/ 성가안내판
LED전광판/ 기념품/ 감사패/ 명함
포스터/ 스티커/ 1톤스카이 보유·임대
☎ 033-262-8555, 010-7308-8555
김요섭 요셉

춘천 중고차
카플러스 자동차
투명한 판매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김유정로 1822(퇴계동)
카플러스자동차/ 전 차종 판매·매입
☎ 010-7436-0079, 010-4176-2745
황병렬 비오·김미숙 세실리아

이 롬 치 과
환자를 우선시하는 수준 높은 진료
춘천 CGV 대각선 길건너편 3층
교우 우대
☎ 033-910-0033
신동휘 아우구스티노